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5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갈매까지 가보자(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채널A 아침뉴스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 470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50 TV동화 발간(재) 55 튜튼 생활채널(재)	50 지구촌 뉴스		25 SBS 뉴스 40 일일드라마 <할 키운 딸 하나>(재)
11 50 모쿠 드라마<싸인>(재)	00 우리말 겨루기(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수목드라마 <예쁜남자>(재)	00 주말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재)	2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50 영상앨범 선(재)	00 MBC 정오뉴스 20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00 뉴스특보	40 문화재감피(재) 40 고항극장(재)	20 보물지도(재)	00 MBC 스포츠 2013 농구 대잔치 결승전	30 KBC 특별기획 <하늘에서 본 남도> (원도)(재)
2 0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선(재)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촌사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00 특집 웰컴 투 시월드 <막걸리의 행복>(재)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 유치원 콩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보물극 원정대 40 헬로 키즈 아하! 역사탐험대	10 SBS 이슈인 사이트
4 10 박종철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네트워킹 특선 <필통> 55 튜튼 생활채널(재)	25 코파반장의 동화수사대 55 비타민(재)	30 우리아이 뇌를 깨우는 10가지 비밀(재)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나눔 특집 다큐 <엄마의 꿈>	05 세상발전 유레카
7 20 고나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할 키운 딸 하나>
8 30 부부극장 공작지(재)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엄마가 있는 풍경 <미미도>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00 KBS 파노라마 50 생명최전선	00 수목드라마 <예쁜남자>	00 수목미니시리즈 <메디컬 탑팀>	00 드라마스페셜 <삼속자들>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타임	10 해피 투게더	15 드라마 페스티벌 <하늘재 살인사건>	15 자기가 <백년손님>
12 20 개국 2주년 특집다큐 <박법신의 행복로드 40년 부인의 비밀 1부>(재)	30 인문강단 락(樂)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45 MBC 뉴스24	35 나이트 라인

EBS

06: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4:30 몬스터 수확나라	18:30 생방송 보너하니
07:00 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방영이의 추억을 이기는겨울 밥상 -레드와인 닭고기 구이 외바>	15:00 피터팬	19:30 TV로 보는 일차 동화
07:15 마이의 모험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바두와 친구들	20:0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똑똑박사 에디	20:20 직업의 세계 일인자
07:45 로보카 폴리	12:1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6:00 덩동영 유치원(재)	20:30 세계테마기행 <천 개의 얼굴, 베트남 4부 -2010년 시간을 잇다>
08:00 덩동영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20 이기 고릴라 동동	
08:20 풍선 코끼리 발루부	13:10 출가운 수확 EBSMATH	16:30 코코몽2	21:30 한국기행 <정음>
08:35 방구대장 뽕뽕이	13:20 소피	16:45 모야모야재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50 모야모야	13:30 바두와 친구들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22:45 극한직업 <양은범비 공장 2부>
09:05 코코몽2	13:45 꼬마 철학자 후고	17:15 꼬마버스 타요	23:15 EBS 역사특강
09:20 생활의 비법 <33대째 내려오는 맛 증집집 김장 비법>	14:00 짚날 채리우스 박사님	17:30 풍선 코끼리 발루부	24:05 지식채널e(재)
10:00 한국기행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7:45 로보카 폴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강	<수학(하)> 12:30 박복의 이슬루 만나는 경제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스런 <생명과학II>
02:30	<문학II> 14:00 <지구과학II>
03:20	<적분과 통계> 15: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04:10	<기하와 벡터> 16:00 2015 수능 스타트 <국어B형>
05:00	<수학II> 17:00 <영어B형>
05:50 탐스런	<물리I> 18:00 탐스런 <생명과학I>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19:00 <화학II>
07:30 <영어독해의 기본(2)>	20:00 <물리II>
08:20 탐스런 <Basic Grammar>	21:00 <지구과학I>
09:10 <생명과학I>	22:00 고교특강 올림 #포스 <Basic Grammar>
10:00 <지구과학I>	23:00 <영어독해의 기본(2)>
10:50 <물리II>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과학실험-하와이	15:50 <과학 4-2>
07:30 수학의 원리 마테미티카	16:20 <과학 5-2>
08:20 9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50 <과학 6-2>
08:30 디문화 한국어	17:20 역사 6 뉴스
09:00 출가운 수확 EBSMATH	17:35 사이트
09:50 <수학(상)>	17:45 인형극장 옛날 옛날에
11:10 <도덕>	18:00 토크 직업이 보인다
11:50 중학 2학년 <수학2-2>	18:30 엄이없이 살아보기
12:30 <과학>	19:00 극한직업
13:10 중학 3학년 <과학>	19:30 원더풀 싸이언스(7)
13:50 중학 개념 끝장내기 <세계사>	20:20 EBS 문화시리즈 <지금도 마로니에는>
14:30 <한문>	21:20 동업신공
15:10 스텝랜드	22:00 중학 퍼펙트 체크업
15:20 초등 내공남남	22:40 중학 3학년 <수학3-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5일(음 11월 3일 乙巳)

子	36년생 성취하리라. 48년생 만사형통하여 경사가 겹칠 수다. 60년생 고정 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느니라. 72년생 부드러움이 감함을 이기는 법이다. 84년생 원만한 게 의사소통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4, 11
丑	37년생 다 이유가 있느니라. 49년생 큰 탈을 얻을 것이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 61년생 우연한 행운이 보인다. 73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전이 될 것이다. 85년생 실속이 있어 아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8, 60
寅	38년생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2년생 관점이 단순하다면 오관을 야기할 수도 있다. 74년생 무리하다보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2, 54
卯	39년생 불안전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51년생 재난에 대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3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태의연할 뿐이 아니라. 75년생 물입하다보면 주변 상황에 소홀해지기 쉽다. 행운의 숫자 : 46, 63
辰	40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곤경에 빠지리라. 52년생 새가 깃을 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64년생 내키지 않으면 굳이 행할 이유가 없느니라. 76년생 마음껏 즐기며 기분 전환을 해야지. 행운의 숫자 : 05, 83
巳	41년생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 53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65년생 마음만 비운다면 괜한 은 날이로다. 77년생 시종일관 신중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4, 24

午	42년생 걸음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54년생 유연한 사고가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 66년생 친화력이 곧 능력을 인식하게 되리라. 78년생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5, 41
未	43년생 뜻밖의 소식을 듣거나 의외의 인물을 만날 수가 보인다. 55년생 현실 여건에 착실히 순응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67년생 기대해도 좋다. 79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6, 33
申	44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실행할 단계는 아니다. 56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들 수도 있느니라. 68년생 흐르는 물처럼 순조로울 것이다. 80년생 때를 만났으니 마음껏 포부를 펼쳐도 좋다. 행운의 숫자 : 56, 49
酉	45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보일 것이다. 57년생 철저하게 개념을 분리하는 것이 편하다. 69년생 일관된 소신으로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81년생 상태를 의심하지 말고 묵히 앞만 보고 걷자. 행운의 숫자 : 71, 09
戌	46년생 반복 되다면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58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느니라. 70년생 절실하지 않다면 잠시 보류해 두는 것도 좋다. 82년생 새로운 방법의 모색에 부심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0, 90
亥	47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되는 마당이다. 59년생 얼마나 값이 다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71년생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83년생 중지를 모은다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0, 9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무표정 연기... 어려운만큼 성취감 최고”



최지우, SBS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 역 완벽 소화

“어느 배우나 도전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 가운데 하나로 박복녀를 선택한 거고요. 시작할 때는 기대와 함께 불안과 우려도 있었지만, 끝마쳤을 때 그만큼 성취감도 컸습니다.”

한류스타 최지우(38)는 지난달 26일 막을 내린 SBS 월화극 '수상한 가정부'를 두고 “붕괴된 가족에 수상한 가정부가 들어와 화합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3일 되풀이했다.

그의 연기가 많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이유는 “멜로의 여왕” 혹은 “겨울연가”의 “지우히메”를 벗어던지고 단발 의상에 무표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답답했죠. 때로는 무표정의 정도가 심하면 화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한 곳 차이’인데 어려웠습니다”

캐릭터의 특성상 표정이 없었을 뿐, 박복녀는 목석(木石)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인물이다. 극 중 상황과 보폭을 맞춰 ‘무표정의 감정 연기’를 해내야 했다는 이야기다.

최지우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입으로 하는 대사가 없었을 뿐이지 눈빛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다”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할 때는 ‘참 한심하다’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캐릭터는 앞서 일본드라마 리메이크작으로 국내에 방송된 KBS 2TV ‘직장의 신’, MBC ‘여왕의 교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를 연기한 최지우도 이 점을 모를 리 없었다.

“제작발표회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려의 목소리도 컸죠. 이 작품은 ‘직장의 신’이나 ‘여왕의 교실’에 비하면 후발 주자라 캐릭터가 겹쳐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그렇지만 매회 시간이 자랄수록 그런 이야기는 없어졌다”며 “촬영에 들어가기 전 원작을 끝까지 봤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연기하지는 않았다. 나는 ‘가정부 미담’가 아닌 ‘수상한 가정부’의 박복녀를 내 방식대로 살려 줬다”고 힘주어 말했다.

극 중 박복녀는 은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가지 패션만 선보였다. 화려한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그에게 이는 또 다른 도전이었을 터다.

최지우는 “모자를 쓸 때는 속상하기도 했다. 조명과 반사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눈 밑이 어두워 보여서 피곤해 보이더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럼에도 “후반부로 갈수록 모자와 앞치마가 없으면 허전했다”며 “앞치마를 입고 리본을 ‘탁’하고 묶어야 바로 긴장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혹시 이 작품을 통해 과거 그가 지니고 있던 ‘멜로의 여왕’이나 ‘지우히메’ 같은 타이틀을 벗어젖히려한 것은 아닐지 궁금해진다.

최지우는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서 “배우에게는 타이틀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소중한단. 단,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류스타나 ‘지우히메’ 칭호가 부담스럽고 제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자만이예요. 발목을 잡힌다면 제가 연기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한류스타의 폼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내 한류를 접화한 지 꼭 10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겨울연가’ 이후 벌써 10년이나 지났다는 데 놀랐죠. 두 번째로는 그래도 10년 동안 인기가 이어져 왔다는 데서 놀랐어요. ‘겨울연가’를 좋아해 주신 일본 분들이 저와 함께 세월을 보내시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행복이에요.”

최지우는 “나는 연기자의 ‘끼’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배우는 아니다. 노력 없으면 안 되는 배우”라며 “그 젊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같다. 작품마다 최선을 다해 그 역할에 빠져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연출뉴스

KBS '하모니' 개최 ... "두번째 감동 선사합니다"

합창단 참가자 UCC 모집 ... 내년 4부작 방영

KBS가 2011년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대회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끈 데 이어 2년여 만에 합창대회를 부활시켰다.

KBS는 내년 3월 4부작 방송을 목표로 '합창으로 함께 여는 세상 하모니'(이하 하모니)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하모니'는 아마추어 합창단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합창대회다. 현재 1차 심사 UCC 동영상 접수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합창단은 오는 25일까지 합창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참가 신청서와 함께 KBS '하모니'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에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2차 지역 예선은 내년 1월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등에서 진행되고, 본선 대회는 내년 2월 22일 KBS홀에서 연다.

총 상금은 6000만원이다. 우승팀은 상금 3000만원, 2등은 1500만 원, 3등은 1000만원 을 받는다 /연출뉴스



TV 하이라이트

요리연구가의 끝없는 도전



직업의 세계-일인자(EBS·오후 8시20분) = 1981년 최초 컬러 TV 요리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으로 1980~1990년대 요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누비며 저녁 메뉴를 책임지던 원조 요리 선생님이 되셨다.

2000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에 초청되어 한식을 선보인 그는 현재 50년 전통의 요리학교 학장이다.

신이 넘은 나이와 국내 유명한 요리연구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에 대한 이종임의 도전과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마흔다섯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7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예순이 넘어서 기능장 시험에 도전, 합격하기까지. 39년 경력의 요리연구가 이종임은 지금까지도 요리 저서를 집필하며 맛있고 건강한 요리 연구를 계속한다.

벌미 밥상, 흑산도 상어



한국의 밥상(KBS1·오후 7시30분) = 홍어의 주산지로 알려진 흑산도. 하지만 2000년 전 '자산어보'에 나와 있는 흑산도는 상어어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실제 지난 원조 요리 선생님이 되셨다.

2000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에 초청되어 한식을 선보인 그는 현재 50년 전통의 요리학교 학장이다.

신이 넘은 나이와 국내 유명한 요리연구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에 대한 이종임의 도전과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마흔다섯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7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예순이 넘어서 기능장 시험에 도전, 합격하기까지. 39년 경력의 요리연구가 이종임은 지금까지도 요리 저서를 집필하며 맛있고 건강한 요리 연구를 계속한다.

천재 골프 소녀 민규의 꿈



내 마음의 크레파스(SBS·오후 5시35분) = 광주 풍암동에 13살 천재 골프 소녀 민규가 살고 있다. 또래 친구들보다 몸집은 크지만 웃을 때만큼은 그 어느 친구들보다 밝은 민규. 하지만 민규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 민규가 이런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말포다'.

민규는 올해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됐다. 정식지도 없이도 천재적인 실력을 보이고 있다.

여러 재단에서 후원을 받으며 아빠와 함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민규가 있기까지는 항상 옆에 있는 호랑이 선생님 아빠의 역할이 컸다. 평소에는 다정하지만 훈련 때만 되면 180도 변하는 무서운 아빠. 아직 13살인 민규는 이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